

‘秋·尹 갈등’ 장기화... 국민은 피곤하다 2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16

코스피(4일) **2357.32** (+14.01P)
코스닥 **826.97** (+8.51P)
환율(달러당 원화) **1137.70** (+3.60원)
금리(국고채 3년물) **0.955%** (-0.025%p)

트럼프·바이든 “내가 이겼다”... 초박빙 승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새벽 백악관에서 미리 승리를 자축하는 연설을 한 뒤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현지시간) 새벽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후 주먹을 들어 보이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윌밍턴/AFP연합뉴스

2020 미국의 선택

지금까지 이런 드라마는 없었다. 역대 가장 파란만장했던 미국 대선 투표가 3일(현지시간) 끝났지만, 개표 과정에서 반전이 거듭되며 결국 당일 승자를 가리는데 실패했다.

2016년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대선 다음 날 새벽 3시 쯤, 한국시간으로는 오후 5시 패배 승복 연설을 하면서 대선의 대장정이 끝났지만, 올해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으로 4일 오전 7시 20분(한국시간 4일 오후 9시 20분) 시점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238명의 선거인단을,

바이든, 미시간·위스콘신 따라잡으며 막판 대혼전 트럼프 플로리다 승리... 바이든 “사전투표 우위” 우편투표 논란 장기 소송전 가능성... 혼돈 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3명을 각각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매직넘버’ 270명을 얻는 후보가 승리한다.

그러나 대선 전 주요 여론조사가 모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낙승을 점쳤지만,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우세였던 6개 경합주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을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선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는 개표 초반 남부 선벨트(북위 37도 이남 지역 총칭)에 속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와 러스벨트(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 있는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핵심 경합주 6곳 중 애리조나를 제외한 5곳에서 우위를 점했다.

트럼프는 특히 경합주 중 가장 많은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에서 승리하면서 대역전극 재연 기대를 높였다.

바이든 후보는 예상대로 인구가 많은 북동부와 서부 주를 휩쓸었다. 여기에 러

스벨트 3개 주는 바이든 지지층이 많이 참여한 우편투표가 늦게 개표돼 아직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편투표 급증에서 비롯된 개표 지연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우편투표 개표가 뒤늦게 시작된 주에서는 이제 결과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위스콘신주는 개표가 95% 진행된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49.6%를 득표해 트럼프(48.9%)에게 역전했다.

이에 두 후보 모두 자신의 ‘큰 승리’를 주장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바이든 후보는 4일 오전 0시 40분께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대선 결과 발표가 이날 오전이나 그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며 “모든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에서 우위를 강조하면서 경합주에서 최종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트위터로 “우리는 크게 이기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민주당)이 지금 선거를 훔치려 한다”고 응수했다. 트위터는 이 트윗이 선거 절차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고 딱지를 붙였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백악관 연설을 통해 자축 분위기까지 연출했다. 그는 “우리는 이 선거에서 이기려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승리했다”며 “수많은 국민이 우리를 뽑았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SK하이닉스 “낸드 매출 5년내 15兆로”

이석희 사장 ‘인텔 낸드 인수’ 비전
“인수대금 90억 달러 해결역력 충분”
3분기 영업이익 1.3兆...175% 증가



이석희(사진) SK하이닉스 사장이 인텔 낸드 사업부문 인수로 5년 내 낸드 매출을 3배 이상 키우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8조1288억 원, 영업이익 1조2997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작년 3분기 대비 각각 18.9%, 175% 증가했다.

▶관련기사 10면

이 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그동안 D램 선도 기업으로만 인정받아왔던 기업가치를 인텔 낸드 인수를 통해 톱 메모리 플레이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3년 안에 낸드의 자생적 사업역량을 확보하고 5년 내 낸드 매출을 인수 전 대비 3배 이상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낸드 매출액(약 5조 2000억원)을 고려하면 2025년엔 낸드 매출만 15조 원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얘기다.

그는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은 끊임없이 생성되는 데이터이며 이를 위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저장 용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낸드 시장 규모는 10년 뒤인 2030년 지금의 5.7배에 달하는 51억TB(테라바이트)에 달하고, 속도와 전력소모가 월등히 뛰어난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비중도 40% 중반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SK하이닉스는 경쟁사 대비 낸드 사업 시작이 늦었던 핸디캡(약점)을

기술로 극복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으로 성장의 중요 변곡점에서 목표만큼 도약의 속도를 낼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낸드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SSD 기술력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보하고 후발주자로서 단기간 개선이 쉽지 않았던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텔 낸드 인수 대금(90억 달러) 마련에 대한 우려와 관련 “내년 말 1차 클로징 시점에 낼 70억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절반가량은 보유 현금성 자산과 향후 창출되는 영업현금 흐름을 활용하고 잔여금은 차입 등 외부 조달과 필요시 자산 유통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다롄 공장에 투입될 투자자금 관련해서는 “자체 공장에서 생산한 낸드 판매로 창출되는 자체 영업현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차 ‘수소전기 상용차’ 中 누빈다

현지업체와 수소생태계 구축 MOU

현대자동차가 중국 수소전기 상용차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상하이와 장쑤성 △저장성 일부를 포함하는 장쑤 삼각주(장삼각)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지역 파트너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은 일본 토요타가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들이는 시장이어서 한일 대표기업의 한판 승부가 벌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12면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국 경제의 중추인 장삼각 지역에서 현대차의 수소전기 상용차를 매개로 수소 생산-공급, 수소충전시설 구축, 차량 보급, 차량 운영(금융)을 아우르는 수소전기차 사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성해 수소전기 상용차 시범 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상해전력고분유한공사(이하 상해전력) △상해순화신에너지시스템유한공사 △상해화전과용자리스유한공사 등과 삼각주 지역 수소 상용차 플랫폼 구축을 위한 MOU도 맺었다.

상해전력은 수소 충전소 건설 투자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을 통한 수소 생산 프로젝트 추진 등을 담당한다. 현대차는 수소전기트럭을 보급하고 수소전기 상용차 운영회사를 설립해 삼각주 지역의 주요 물류 기업에 차량을 보급·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030년까지 중국 시장에 수소전기차 2만 7000대 이상을 판매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인철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부사장)은 “중국은 잠재력이 큰 시장 중 하나”라며 “중국 시장에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수소차 리스, 충전소 운영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秋·尹 갈등' 장기화... 국민은 피곤하다

국감 이후 상호 비난 수위 높아
秋 "尹 행보 정치적 중립 훼손"
尹 "살아있는 권력 엄벌" 맞불
법조계 "檢 비판, 사기 꺾일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상호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검찰 안팎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4일 "국민 눈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력다툼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강대강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합세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급격히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어느 한쪽의 힘으로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합심해야 하고 검찰 내부의 협력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난망하다"고 덧붙였다.

◇ 갈등 언제까지...국감 이후 '격화' =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지난 국정감

추미애·윤석열, 강대강 대립 주요 발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내 사람이 드러난다'며 (인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1월 검찰 간부인사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
수사지휘권 발동해 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지문단 소집
윤 총장, 내 지시 절반 잘라먹었다(국회발언)	한명숙 사건	대검인검부장 총괄지휘 지시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국정감사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
검찰총장이 정치 중립성 훼손	지방청 순회	검찰 가족 애로사항 들으려 와

사를 기점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끝난 국감 이후 일선 검찰청을 돌고 있는 윤 총장의 행보를 '정치적 행동'으로 판단하고 문제라고 못 박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했던 전국 지방검찰청 순시를 재개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이 과정에서 측근들과 재회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게 아니

는 관측이 나왔다.

무엇보다 추 장관은 온라인을 통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일부의 문제로 봤다.

최근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검찰권 남발 등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공개 저격하면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는 약 300개에 달하는 지지 댓글이 달렸다.

추 장관은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조계 "불신 커질 것" =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추 장관을 의식한 듯한 우회적인 발언으로 맞서고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입장 발표가 있던 날 오후 인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연을 했다. 추 장관의 비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강조한 통상적인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과 여권의 사퇴 압박 등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반격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마찰이 검찰은 물론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직접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권의 필요 때문에 검찰을 바꾸려고 하고, 검찰은 다음 정권을 대비해 버티는 것 아니겠냐"며 "법리가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이 움직이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의뢰인들도 있다"고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개혁의 당위성을 위해 검찰 조직을 계속 비판하면 일선 검사들의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 정수천 기자 int1000@

뜨거운 공공재개발... 차가운 공공재건축

재개발 참여 의향서 제출 사업지 30여곳 경합... 재건축 대어급 사업지 '참여 불가' 선회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꺼내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마감일까지 신청이 쇄도할 만큼 열기가 달아오른 반면, 공공재건축은 대어급 사업장들이 잇달아 발을 빼면서 시들해진 양상이다.

4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호 23구역과 상계3구역, 용산 서계동 일대 구역 등은 최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다. 원효로1가와 신월7동, 장위12구역 등도 가세했다. 한남1구역과 흑석2구역, 장위9구역 등은 일찍감치 공모 신청에 나선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9월 21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진행했다. 공모 전 단계인 참여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지는 30여 곳에 이른다. 시장에서는 마감일까지 공모 신청이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30~40곳이 시범사업지 선정에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8·4 대책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강북권

을 위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 전역에서 공공사업 후보에 출사표를 던졌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비사업에 참여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이에 재개발 추진 사업자들은 줄줄이 공공사업에 뛰어들며 일찌감치 흥행을 예고했다. 현재는 시범사업 후보지에 선정되기

위해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으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정비구역은 12월, 신규 지역은 내년 3월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경쟁으로 달아오른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시장은 김이빠진 지 오래다. 대어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4424가구)가 '참여 불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양극 없는 썩빵'이 됐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용산구 한강맨션과 청량리 미주아파트 등도 잇따라 발을 빼면서 사실상 중소형 사업지만 남은 형국이다. 이로써 당초 총 1만3900여 가구에서 3840가구만 사전컨설팅을 받게 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용적률은 300~500%까지 높일 수 있지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면서 "간섭만 받고 남는 건 없다"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인식이어서 공공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Hayon Studio

현대프리미엄아울렛

SPACE 1

2020.11.6

쇼핑에 아트와 체험을 더한
국내 최초 신개념 갤러리형 아울렛 SPACE1이 남양주에 찾아옵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하이메 아온이 설계한 조각공원, 아웃도어 가든에서 펼쳐지는 액티비티, 문화와 예술로 채워지는 프리미엄 쇼핑 라이프를 경험하세요.





h point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점세점 | 한성 | 현대리마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Hmall | 더현대닷컴 | 더한샘닷컴 | H패션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50

서로 총 겨누고, 가족마저 등돌려... '두 동강' 난 미국

美 민심 '일촉즉발'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투표는 우려와 달리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선거 전날까지도 항의 시위나 투표 방해, 폭력 및 소요 사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다행히 큰 사건·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총투의 불씨는 여전하다. 대선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데다 대선 전 극성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던 만큼 승패가 조기에 갈리지 않으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누가 당선하든 미국 사회의 분열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불안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4일 대선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LA) 등 미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극성 지지자의 폭력 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근처 BLM(Black Lives Matter·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광장에서는 1000여 명이 모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곳은 우리의 거리", "우리가 정의를 얻지 못하면 그들은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외쳤다. 시위대로 보이는 한 흑인은 백악관으로 향하던 중 버스 정류장 지붕에 올라타는가 하면, 트럼프 지지자 복장을 한 여성에게 "거리를 떠나라"고 소리쳤다. 급기야 그는 폭행까지 가했다. LA에서는 이날 100여 명의 시위대가 고속도로에서 행진을 시도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저지됐다.

개표 진행 중 곳곳서 시위 폭력 사태 결과 늦어질수록 지지자간 갈등 격화 "더이상 내 엄마 아냐" 가정 파탄도

더 불안한 건 대선 승패가 혼돈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4일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서로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개표 지연 속에서 결과가 계속 불투명하면 극성 지지자들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총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다. 뉴욕 타임스(NTY)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총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1% 급증한 1510만 정으로 집계됐다. 1일 로버트 리 장군 동상 근처에서 차량 선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총기를 동원해 반(反)트럼프 유권자를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테러나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은 혼란의 위험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와 바이든 지지자 각각 41%, 43%는 상대 후보가 이기면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각각 16%와 22%에 해당하는 지지자들은 폭력이나 시위에 호소하는 것조차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캐롤린 갤러허 아메리카대 교수는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그에게 반대한 사람들이,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보수 세력이 각각 일어날 것"이라며 "폭력은 어느 쪽에서든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미국 사회는



미국 대선일인 3일(현지시간) 밤 워싱턴D.C. 백악관 맞은편에 있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광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지지자(왼쪽)가 시위자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이미 붉은색과 푸른색 두 쪽으로 극명하게 두 동강 났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사는 40대 여성은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하자 아들에게서 "당신은 더는 내 엄마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사

례를 소개하면서, 미국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지난 4년 동안 정부에 대한 견해에 따라 극심하게 갈렸다고 진단했다. 미국 사회는 현재 가족 간에도 지지하는 대선 주자가 갈리면서 절연을 선언할 정도로 분열하고 있다.

제이 반 바벨 뉴욕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국 역사상 트럼프 대통령만큼 핵심 가치관을 놓고 국민을 분열시킨 인물은 없었다"며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으려 하고, 이 같은 분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효선 기자 hsyun@

'연방의회' 누가 장악하나

찾잔 속 '블루 웨이브'... 상·하원 고전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도 혼전 양상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4일 오후 9시 시점에 하원은 민주당이 190석으로, 공화당의 181석을 앞서고 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7석으로 동석을 기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뛰어넘고 선전한 데 이어 의회도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빚나간 셈이다. 정부와 의회를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는 커녕 시장이 최악으로 여겼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날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와 함께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선출하는 투표도 함께 치러졌다. 임기가 6년인 상원 의원은 전체 100석 중 35석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고, 2년 임기인 하원 의원은 435명 전원에 대한 선거가 치러졌다.

상·하원 선거도 예상과 달리 접전 양상을 보였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원 구조가 현재 민주당 232석, 공화당 197석에서 민주당이 7~8석을 더 차지해 240석 초반으로 다수당의 위치를 더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뚜껑을 열어보니 개표 중반을 넘어서까지 공화당이 앞서서 이번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당이 적은 표 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64석의 주인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보면 공화당에서 2석을 빼앗았지만, 공화당은 6석을 탈환해 오히려 공화당이 더 선전하는 모습이다. NYT는 민

주당이 하원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나 의석 수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이고 민주당은 45석이지만,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이 있다. 이번 선거에 포함되는 의석은 공화당이 23석이고, 민주당이 12석이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하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상원 의석이 50대 50일 경우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된다.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6곳 중 지난해 12월 은퇴한 조니 아이잭슨 의원의 잔여임기를 채울 의원을 선정하는 조지아주 특별선거는 내년 1월 결선투표로 승자가 가려진다.

NYT에 따르면 나머지 5곳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우위를 보여 결과가 이대로 끝나면 공화당은 과반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베테랑 공화당 정치 분석가인 프랭크 룬츠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상원 결과를 예상하기는 너무 박빙의 승부"라며 "민주·공화 양당의 50대 50 구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물이 되면 백악관을 누가 차지할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상원은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함께 의회를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시나리오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경기부양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대선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민주당이 상원 장악에 실패하면서 경기부양책이 입안에서 통과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려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서영 기자 0jung2@

2분에 1명씩 굿앤굿

대한민국 어린이가 2분에 1명씩 가입하는 보험

최근 3년(2017~2019) 신계약 가입건수 854,776건 기준



230만 어린이를 지키는 이름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현대해상 하이플래너를 만나보세요 ☎1588-5656 / www.hi.co.kr

※ 2019년 12월 기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유지계약 2,321,041건 (2004~2019년 가입)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준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충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금융상품의 계약한금액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점부터 최대 100세까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합의 심의필 제29031호(2020.03.27)

마음이 합니다

H 현대해상

트럼프 뒷심에 놀란 바이든, 믿을 건 '사전투표'

사전투표 1억 명 돌파... 우편투표 집계 주마다 제각각 '변수' 바이든 "인내심 갖고 지켜보자"... 트럼프 "사전투표 법원 갈 것"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이 사상 초유의 혼돈 양상을 보이면서 조기 현장투표와 우편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렸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막판 뒷심을 발휘, 핵심 경합주 6곳 중 5곳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4년 전 대선 당시의 기적적인 역전극을 다시 연출할 조짐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여전히 전체 선거인단 수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만일 사전투표 결과 이들 경합주에서 트럼프에게 역전하지 못하면 고배를 마실 수 있다.

CNN방송은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등 4개 주가 3일에서야 사전투표 집계를 시작했다"며 "트럼프 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대선 레이스가 공중에 붕 뜨게 됐다"고 지적했다.

플로리다대의 선거정보 제공 사이트 'US선거프로젝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사전투표는 1억 명을 돌파했다. 이는 4

년 전 대선 당시 총투표 수의 7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 가운데 조기 현장투표는 약 3600만 표이고, 우편투표는 6500만 표 이상이었다.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각 주마다 우편투표 접수를 마감하고 집계하는 시기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미주리와 앨라배마 등 28개 주는 선거 당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인정했지만, 나머지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것도 받는다. 심지어 워싱턴주는 11월 23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도 받아들인다.

플로리다 등 대부분의 주는 서명 대조 등 우편투표 개표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미리 해놓아 선거 당일 개표가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

문제는 선거일이 돼야 사전투표 개표에 들어간 4개 주 중 러스트벨트(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한 3곳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 사선투표 개표 절차 준비 작업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떠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앞에서 한 시민이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른 펜실베이니아주는 선거 당일인 3일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6일까지 도착하는 것도 접수한다. 6일 이후에나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가 확정된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사전투표 개표가 다른 주에 비해 늦어지게 된 4개 주 모두 초기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우편투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상황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후 9시 35분 현

재 개표율이 75%인 가운데, 트럼프 득표율이 55.1%, 바이든은 43.6%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위스콘신주는 개표율 97% 상황에서 바이든이 49.5%로, 트럼프의 48.8%에 역전했다. 미시간주는 개표가 86%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가 49.4% 득표율을, 바이든은 48.9%를 각각 나타냈다. 한편 조지아주는 92% 개표 상황에서 트럼프가 50.5%, 바이든이 48.3%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초조해진 바이든은 "사전투표로 대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며 불안한 지지자들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4일 새벽 0시 40분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기 현장투표와 우편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가 다 반영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우리는 경합주 중 한 곳인 애리조나에서 이기고 있고 미네소타도 느낌이 좋다. 조지아는 격전 중이며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도 자신이 낫다"고 경합주 승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펜실베이니아도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 캠프는 현장투표와 사전투표 등 여러 가지를 놓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트럼프는 같은 날 백악관에서 행사를 열어 사전투표가 대체를 바꿀 수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우리는 펜실베이니아에서 큰 격차로 이기고 있고 미시간도 마찬가지로"라며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연방대법원으로 이 문제(사전투표 집계)를 가져갈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또 '샤이 트럼프' ... 빛나간 여론조사

바이든 10%P 차 압승 점쳐 경합주 예측 달리 트럼프 선전

다 틀렸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압승할 것이라는 미국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의 예상이 또 크게 빗나가면서 2016년 막판 대역전극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에도 주요 경합주의 판세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또 체면을 구겼다. WSJ과 NBC뉴스는 공동으로 실시한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반면 12개 경합주의 여론조사는 두 후보가 박빙으로,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점했다. CNN은 바이든 후보가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고, NYT는 시에나대학교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펜실베이니아, 플

로리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모두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여론조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뒤쫓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최대 격전지인 산벨트 지역의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를 가져갔다. 애리조나는 바이든 후보에게 돌아갔지만, 선거인단 15명을 보유한 노스캐롤라이나는 94% 개표 상황 기준 트럼프 대

통령이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는 여론조사의 신뢰를 무너뜨린 최대 변수로 지목됐다. 미국선거프로젝트 책임자 마이클 맥도날드 플로리다대학교 교수는 올해 선거에 1억50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사전투표 참여자 수만 1억 명을 넘었다. 이 중 우편투표 참여자 수는 6500만 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비록 여론조사가 빛나간 했지만, 현지 언론은 2016년의 악몽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대선 레이스 내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개표 방송을 준비했다. CNN과 ABC, CBS, NBC 등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여론조사업체 에디스리서치를 통해 출구조사를 진행했다. 사

전투표 수가 많아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조기 현장투표와 우편투표 예측치까지 출구조사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다.

CNN은 주별로 집계되는 투표의 종류를 분석해 특정 후보가 우세하는 이유까지 전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단순히 투표수와 득표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와 현장투표 등을 분석해 초기와 막판 결과 불일치를 피해 보겠다는 것이다.

선거전문매체 파이브서티에잇은 아예 선거 당일 밤까지 출구조사를 다루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전투표 규모가 커 출구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다.

최혜림 기자 rog@

YouWho

아시아 유일!! 국내 최초!!
DNA 혈통분석 서비스

그것을 아십니까?
한국인이라도 다양한 인종의 혈통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Meet you All

Designed by B-forbrand
www.b-forbrand.com

2020 레드닷 어워드 수상
Red Dot Design Award

reddot winner 2020

2020 펜타워즈 브론즈 어워드
Pentawards Bronze Award

1. 유후는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에서 개발한 DNA 분석서비스로서 나의 DNA와 6대륙 22개 인종 95개 국가 인종의 DNA와 비교 합니다.
2. 나의 무게 7개그룹, 무게 12개그룹의 유전적 혈족을 알 수 있습니다.
3. 국내 전체 유전체 기업 중 유전자 혈통분석이 가능한 기업은 EDGC가 유일합니다.

제품상담 : 032-713-2128 | 구매문의 : www.youwho.co

Cell-free DNA기반 토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글로벌 유전체 분석 토탈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으로 Cell-free DNA(세포 유리 DNA) 분석기술 기반, 질병을 예측, 진단, 치료하는 최첨단 생명과학 기업입니다.

대선 결과 불확실성에 환율 하루 새 22원 출렁

국내 금융시장 영향·투자전략

서울 강남구에 사는 직장인 김 모 (45) 씨는 4일 장중 보유하고 있던 미화 20만 달러 중 절반을 1148원에 팔았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고 상·하원도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란 불확실성이 섞이면서 하루 동안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는 틈을 타 차익실현을 한 것이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오른 1137.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하루 22원이나 움직였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0만 달러를 1108원대에 샀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선거 덕에 앉은 자리에서 400여만 원(수수료 제외 전)의 환차익을 올린 셈"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이 요동치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대선 결과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4.01포인트(0.60%) 오른 2357.32에 마감했다.

채권시장은 장단기물가를 막론하고 강세를 나타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2.5bp(1bp=0.01%p) 하락한 0.955%를 기록했다. 채권금리 하락은 채권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10년물 금리는 연 1.569%로 3.8bp 하락했다.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3.0bp 하락, 0.9bp 하락으로 연 1.266%, 연 0.693%에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채권시장이 강세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미국 대통령'의 정책들을 예상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채권시장에 우호적

대선 불복·부양책 등 불안감에 코스피 2150~2350선 오갈 것

위험자산 단기 하락 후 제자리
"불확실성 해소 전엔 안전자산, 이후 주식 저가 매수기회 봐야"

이지 않을 것이라 진단 때문이다.

◇지금은 쉬어가는 타이밍=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자체로 빅 이벤트지만, 주식시장의 관심도 많다. 8월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 발목을 잡아왔던 5차 재정부양책 합의를 기다리고 있고,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구성이 달라져 정책 모멘텀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세계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통화정책은 환율과 금리를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핫머니의 움직임도 달라진다.

걱정은 불확실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후보 중 어느 한쪽이 불복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코스피가 2150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선진국 중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지지부진한 미국 추가 부양정책 등의 영향에 한국 증시는 코스피지수 2150~2350포인트 사이를 등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150포인트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9배에 해당한다"며 "코로나19 2차 확산에 기업 이익 개선 흐름이 약화할 수 있지만,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이익 증대가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시장 안정 여부는 대선 결과와 경기부양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기 부양이 중요하겠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를 체크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지만 불복하는 경우가 가장 큰 걱정이다"며 "누가 되더라도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이 또한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단기 금리들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지켜볼 것을 권한다. 금리가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금 쟁여두고 주식 매수기회 봐야" =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발

(發)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다. 전문가 상당수는 브렉시트 때와 마찬가지로 위험자산이 단기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일단은 달러나 채권 등 비교적 안전한 자산으로 돈을 굴리며 수익을 실현하고, 이후 살 만한 주식의 저가 매수 기회를 볼 것"을 권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 상황에서 대선 관련 투자 전략을 조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예를 들어 바이든이 되면 환경 관련 주가가 좋을 것이고 빅테크는 규제 때문에 안 좋을 것이고 성장률보다 가치주가 좋다는 것은 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맞는 투자전략인지는 뚜렷 열어봐야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단순 이분법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증권사 한 PB(프라이빗 뱅커)는 "머니마켓펀드(MMF)나 정기예금·금리플러스 알파를 쟁길 수 있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 3개월 또는 6개월 만기의 전자단기사채(전단채)에 자금을 쟁여두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금,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가져갈 것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KRX 금 시장에서 금 가격은 전날보다 390원 오른 6만96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하루에만 금은 37.9kg 거래됐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김우람 기자 hura@
김하늬 기자 honey@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개미들 '인버스 ETF' 단타 급증

이달 1305억 순매수... 美 대선 불확실성에 '하락장' 베행

지난달 향후 증시 반등에 기대를 걸고 상승장에 베행한 개인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비중을 급격하게 늘렸다. 우편투표 결과 불복에 따라 미국 주별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12월 8일 이전까지는 증시에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단기간 주가 하락에 '단타'하는 개인들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4일간 개인들이 순매수한 인버스 ETF 규모는 1305억 원이다. 같은 기간 레버리지 ETF는 2914억 원 순매도했다. 앞서 이전 달에 레버리지 ETF를 2720억 원 순매수하고, 인버스 ETF를 1464억 원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당선자 확정 이후에 결국엔 지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개인들은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ETF를 사들였다. 실제 10월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로 순매수액은 1774억 원이었다. 다음으로는

'KODEX 레버리지' ETF(864억 원)가 많았다.

그러나 현행투표 결과 발표 이후에도 대선 결과 불복이 이어짐에 따라 최소 한 달간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자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 투자로 급격히 선회하는 모양새다.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향후 증시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번 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선 결과 불복은 증시의 상승세를 짓누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우편투표 결과 불복으로 백악관 주인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힘겨루기로 미국 5차 경기부양책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며 "부양책 협상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한 정치 불확실성에 억눌린 시장의 주가 방향을 선거가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주식하고 싶다면? 투자 더 잘하고 싶다면?!

신한알파 미도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부터 시알고리즘 투자정보 제공
국내 최초 해외주식 소수점 서비스까지 앱 하나로!

신한알파

AOS

IOS

*전속모델·배우전미도

상담전화 | 1588-0365
홈페이지 | www.shinhaninvest.com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한금융투자

※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국내주식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916399%(거래금액, 매매별 차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4318호 (2020-09-14 ~ 2021-09-13)

‘트럼프 재선’ 김정은·푸틴에 호재?… 각국 셈법 복잡

‘美와 대립각’ 中 시진핑 “외부 환경변화 적극 대응” 강조 바이든 당선엔 불확실성 커져 북한·러시아·터키 재선 기대

미국 대선 결과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주요국 정상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시 주석이 4일 상하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EE)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 주석은 3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시기를 지나고 있고, 국내외 환경은 매우 복잡다변하다”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과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내년 1월이

후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원래 연내 미국 방문을 추진했으나 미국 대선 결과를 놓고 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일정을 연기한 것이다. 2016년 대선 때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11월 미국을 방문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당시 당선인과 회담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만을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지지하는 등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을 자처했는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인권 문제와 아마존 개발 등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까 걱정하는 정상으로 레제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 김정은 위원장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지만,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는 등 ‘이상하고도 훌륭한’ 케미를 발산했다. 바이든 후보는 비핵화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뜻을 밝힌 상태라 그가 당선된다면 김 위원장이 대북 제재 완화를 기

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러시아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후보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한다”는 지적을 받을 만큼 치열한 몰밀 작업을 진행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푸틴의 강아지”라고 부르며 대립각을 세운 터라 러시아에 대해 트럼프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무함마드 왕세자 역시 트럼프의 승리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를 택했고, 언론인 자말 카슈기치 살해 사건에 무함마드 왕세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을 때 적극 옹호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당장 제재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터키가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사들이기로 결정하자 미국 의회는 제재를 가하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혼자 반대했기 때문이다.

최혜림 기자 rog@

최다 투표·최고령 대통령... 누가 되든 새역사

사전투표 1억, 지난 대선 전체투표의 73%...트럼프 74세·바이든 78세

올해 미국 대선은 여러 면에서 ‘기록적인 선거’로 역사에 남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전투표와 역대 가장 큰 선거비용, 최고령 대통령 취임 등 기록이 쏟아졌다.

CNN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투표한 대선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선거프로젝트의 집계 따르면 대선 당일(현지시간 3일)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1억116만7740명에 달했다. 이 중 우편투표 수는 6524만4687건이었다. 2016년 대선 당시 사전투표

수인 4700만 건보다 2.5배 이상 많은 기록이다. 당시 총투표수가 1억3650만 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사전투표만으로 직전 대선의 73% 수준이다.

두 후보가 사전투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인 탓에 당파에 따른 유권자의 선택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 44.8%가 민주당원이었고, 30.5%는 공화당원이었다.

미국선거프로젝트의 책임자 마이클 맥도날드 플로리다대학 교수는 올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1억5000만 명을 넘어 투표율 6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의 전망대로라면 1908년 대선

(65.4%) 이후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 2016년 대선 투표율은 56.9%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중 누가 백악관에 입성하더라도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다. 1946년생인 트럼프 대통령은 74세로,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재선에 성공한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다. 그는 2017년 1월 만 70세의 나이로 취임해 최고령 대통령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의 ‘최고령’ 타이틀을 갈아치울 수 있다. 그는 내년 1월 취임한다면 78세의 나이로 대

2020 미국 대선 이 남긴 신기록

- ✓ '역대급' 투표 열기
 - 사전투표 1억116만7740명
 - 우편투표 6524만4687명
- ✓ 누가 되든 최고령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만 74세(1946년 생) 재선에 성공한 최고령 대통령
 - 조 바이든 만 78세(1942년 생) 역대 최고령 대통령
- ✓ 판돈 규모 역대 최대
 - 베트페어익스체인지에 2억5000만 파운드 (약 3705억 원) 물러

통령이 된다. 두 후보가 4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바이든 후보가 나이가 많아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공격해왔다. 그는 바이든이

치매에 걸렸으며 ‘슬리피 조’라는 별명을 붙여 조롱했다.

또 이번 대선을 놓고 베팅사이트에 걸린 판돈도 사상 최대였다. 영국의 베팅업체 베틀페어익스체인지는 1일 기준 미국 대선 승자를 알아맞히는 종목에 2억5000만 파운드(약 3705억 원)가 걸렸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대선 당시 1억9900만 파운드를 넘어 단일 종목 신기록이다. 베팅업체가 예측한 승률은 바이든 후보가 높았다. 베틀페어익스체인지는 바이든 후보의 승률을 66%, 트럼프 대통령의 승률을 35%로 계산했다. 하지만 승률 대신 걸린 금액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더 많은 금액이 몰렸다.

또 이번 대선에는 사상 최대인 109억 달러(약 12조 원)의 비용이 들어 ‘역대 가장 비싼 선거’로 불린다.

최혜림 기자 rog@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늘색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1년 70일 이상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함께해주세요!



대한민국 배터리의 꿈을 꾸다

1982년 SK 배터리 사업 비전 설정
1985년 SK 배터리 등 개발 연구소 업계 최초 설립
국내 최초, 최대의 정유·화학회사로 1962년 설립된 유공은 현 SK이노베이션의 전신임



대한민국 배터리의 꽃을 피우다

2004년 SK 배터리 안전 핵심소재 LiBS(분리막)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상업화 성공. 2005년 본격 생산
2006년 SK 자동차용 중대형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성공
2009년 SK 배터리 글로벌 첫 수주(D사)
2010년 SK 배터리 탑재된 국내 첫 전기차 생산
2011년 SK 배터리 글로벌 슈퍼카 공급 업체 선정



대한민국 배터리, 세계와 함께하다

SK 배터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의 지속적 파트너십
SK 배터리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한국, 중국, 유럽, 미국)
SK 분리막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한국, 중국, 유럽)

SK Innovation



대한민국 배터리의 싹을 틔우다

1991년 SK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 시작
1992년 SK 대한민국 G7과제 전기차 배터리 개발 주관기관 선정
1993년 SK 배터리 전기차 시험운행 성공
1996년 SK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시작



대한민국 배터리, 세계를 놀라게 하다

NCM622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2)/첫 양산(2014)
NCM811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6)/첫 양산(2018)
NCM9½½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9)/첫 양산(2022예정)
NCM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기술로, 전기차의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N(니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최첨단으로 국내외 기업 중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전후부터 글로벌 수주를 해 오고 있음

세계를 움직이는 K-배터리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가장 멀리 나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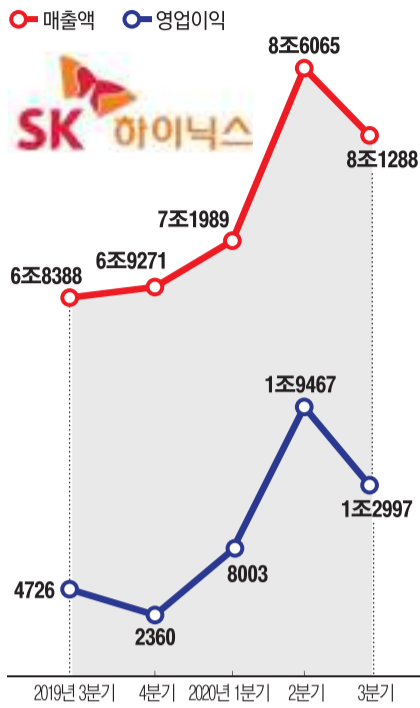
전기차 개념도 희미하던 38년 전,
에너지축적배터리시스템은 SK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이제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 메모리 값 약세에도 영업이익 175% 꺾충

〈전년 대비〉

SK하이닉스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3분기 1.3조...매출 8.1조 선전
코로나 영향 반도체 수요 증가

“DDR5 제품 고객인증 차질없어”
이천공장 EUV D램 생산 속도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하락 흐름 속에서도 3분기 영업이익 1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 매출액 8조 1288억 원, 영업이익 1조2997억 원, 순이익 1조779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9%, 175% 늘었다. 영업이익률도 16%로 작년 7%에서 9%포인트 증가했다. 순이익률은 13%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집콕’ 수요 증가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었고, 미국의 중국 화웨이

규제로 인한 긴급주문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전 분기 대비해선 매출 6%, 영업이익은 33% 줄었다. 3분기에 모바일용 메모리 수요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데이터센터용 서버 D램과 SSD 수요가 약세를 보였고 메모리 시장의 가격 흐름이 하락 추세로 전환한 탓이다.

D램은 서버 고객의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과 그래픽 신규 수요와 일부 컨슈머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 분기 대비 출하량은 4% 증가했다. 그러나 서버 D램 등의 가격 약세 흐름으로 인해 평균판매가격은 7% 하락했다.

낸드플래시 역시 모바일용 제품과 신규 게임콘솔용 SSD 판매 확대로 지난 분기 대비 출하량은 9% 증가했으나, 서버용 제품의 가격 약세로 평균판매가격은 10% 하락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에도 모바일 시장의 계절적 수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PC용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D램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캐파(생산능력)가 올해 보수적 투자 기조로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석희 사장은 메모리 사이클이 기존 2년 수준에서 1년으로 짧아진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조금 더 절제된 시설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공급사 빚그로스(bit growth·메모리 반도체의 생산량 증가율)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또 하나는 산업 내에서 공급망(SCM) 관리가 점점 고도화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는 D램은 10나노급 2세대(1Y) LPDDR5의 판매를 확대하는 등 모바일 수요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부터 평가물량 공급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장 관점에서 의미 있는 물량은 2022년부터 본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DDR5 제품은 4분기부터 서버 고객에 대한 샘플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고객인증을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3분기 초부터 선도 SOC(시스템온칩) 업체들과도 선도적으로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V(극자외선) 적용 D램 생산도 속도를 낸다. 올해 말 완공되는 이천 M16에는 이미 EUV 전용 클린룸 공간이 마련됐다. 장비도 일정대로 입고될 예정이다. 낸드플래시도 안정적인 모바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3분기에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128단 기반 제품 비중을 확대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 업체의 수요 확대, 업체간 시장 점유율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에도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버 고객 수요는 내년 상반기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 사내벤처 C랩, 탈모예방 등 3개 스타트업 독립

올해 8개 우수과제 지원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기업 ‘비컨’은 간편하게 집에서 탈모 진단과 예방이 가능한 셀프 케어 솔루션이다. 전용기기로 두피를 촬영하면 민감도, 각질, 머리카락 밀도 등 10가지 항목을 진단하고 모발 상태에 맞는 맞춤형 헤어 제품을 추천해 집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스타트업에 도전한다.

삼성전자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인사이트’의 3개 우수 과제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독립한 5개 팀에 이어 올해만 총 8개의 사내벤처가 스타트업 도전에 나섰다.

C랩 인사이트는 삼성전자가 창의적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도입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C랩 스피노프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C랩 인사이트 과제들이 스타트업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독립하는 3개 스타트업은 △AI(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탈모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컨(Becon)’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홈 IoT(사물인터넷) 소변 검사 시스템 ‘엘로시스(Yellosis)’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삼성전자 C랩을 통해 창업에 도전하는 3개 과제 참여 임직원들. 사진제공 삼성전자

IoT 기기와 플랫폼을 개발하는 ‘바이브존(VibeZone)’이다.

‘엘로시스’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홈 IoT 소변 검사 시스템이다. 양변기에 거치하는 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소변 검사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pH·포도당·잠혈·단백뇨·케톤뇨 등 분석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누적으로 관리해 건강 상태 모니터링과 이상 징후 발생 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바이브존’의 첫 제품은 스타와 팬을 연결해주는 디지털 글즈 ‘블링(Bling)’으로 스

타가 블링에 메시지 신호를 남기면 팬이 가지고 있는 블링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1대 1로 소통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5년 8월 처음 도입한 C랩 스피노프 제도는 창업자들에게 초기 사업자금과 창업지원금을 제공하고, 희망 시 스피노프 후 5년 내 재입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까지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71명이 창업에 도전해 48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SK이노, 차세대 배터리 인재 강화

전고체 소재 개발 등 수시채용
주행거리 획기적 향상 가속도

SK이노베이션이 미래 배터리 시장에서 패권을 쥐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차세대 배터리 개발 인력 수시채용을 시작한다.

SK이노베이션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고체전해질 및 리튬 음극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해 현재 시장의 주류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르고 있는 기술 경쟁력을 미래 배터리 시장에서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전고체 소재 개발 △전고체 배터리 셀 개발 △리튬 메탈 음극 개발 등이다.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소재 개발부터 성능, 수명,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까지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유관 업무 경험자를 우대하며, 관련 분야 석·박사 신입연구원도 이달 9일부터 22일까지 공고로 통해 모집한다.

차세대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계로 여겨지는 800Wh(와트시)

/L를 훌쩍 뛰어넘어 1000Wh/L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거론된다. Wh/L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의미하는데 밀도가 높아지면 부피를 적게 차지한다. 따라서 전기차에 더 많은 배터리를 넣어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 또, 고체전해질을 적용해 안전성이 뛰어난 전고체 배터리 시스템을 완성하면 안전과 관련한 부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차세대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대세로 여겨지는 NCM(니켈-코발트-망간) 삼원계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NCM622(니켈 60%, 코발트 20%, 망간 20%로 배합한 양극), NCM811(각각 80%, 10%, 10%), NCM9½(구반반, 각각 90%, 5%, 5%) 등 고 니켈 양극을 적용한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10월 수입차 등록 10% 늘어...판매 1위 티구안

지난달 수입차 신규등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한 2만4257대를 기록했다.

관심이 쏠렸던 BMW 5시리즈(완전변경)와 벤츠 E-클래스(부분변경)의 대결에서는 BMW가 앞섰다.

4일 한국수입차협회는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전월 2만1839대보다 11.1% 증가한 2만4257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만2101대)보다도 9.8% 늘어난 규모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 21만6004대 역시 전년 동기 18만9194대보다 14.2% 증가했다.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가 6576대로 1위에 올랐다. 이어 BMW 5320대, 아우디 2527대, 폭스바겐 1933대, 볼보 1449대 순이었다.

10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폭스바겐 티구



폭스바겐 2020년형 티구안.

안 2.0 TDI로 총 1089대가 팔렸다. 이어 볼보 XC40 B4 AWD(1017대), BMW 520(834대) 순이었다.

관심이 쏠렸던 BMW 5시리즈와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의 대결은 BMW가 앞섰다. 지난달 BMW 신형 5시리즈가 1700대 팔린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는 977대 수준에 머물렀다.

김준형 기자 junior@

LG전자 인테리어 가전 브랜드 '오브제컬렉션' 영상공유 이벤트

LG전자가 4일 새로운 공간 인테리어 가전 브랜드 'LG 오브제컬렉션(LG Objet Collection)'에 담긴 다양한 스토리를 온라인 광고로 소개했다. LG전자는 오브제컬렉션의 15개 알파벳마다 의미를 부여한 15편의 영상을 LG 오브제컬렉션 브랜드 사이트에 공개했다.

LG전자는 15개 알파벳에 각각 오브제(Objet), 밸런스(Balance), 조이풀(Joyful), 엣지(Edge), 테크놀로지(Technology), 컬렉트(Collect), 오케이(Okay), 러브미(Loveme), 레이아웃(Layout), 이모션(Emotion), 체인지(Change), 타임리스(Timeless), 아이디어(Idea), 온리원(Only one), 뉴라이프(New life)라는 의



미를 부여했다. LG전자는 이달 30일까지 15가지 영상을 보고 내 스타일에 잘 맞는 단어를 골라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패키지, 광파오븐과 정수기 패키지, 1도어 냉장·냉동·김치 컨버터블 냉장고 3종, 스타일러 등 오브제컬렉션 선물 이벤트를 진행한다. 노우리 기자 we1228@

KLPGA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는
결전의 날이 다가온다!

2020



수이상

허윤경

유소연

박현경

최혜진

김유빈

고진영

김효주

장하나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스카이72 골프클럽 오션코스 2020. 11. 5(목)~8(일)

방송시간 [1, 2R] 11:00 ~ 17:30 [3R] 11:00 ~ 17:00 [4R] 10:00 ~ 16:00

채널 SBS Golf, 네이버, 다음카카오, 모바일(KT Olleh, LG U+)



현대차, 中 수소차시장 놓고 토요타에 선전포고

<2050년 500만대>

中國가 주도 '수소산업' 활성화 선점 기업이 글로벌 표준 우위에 "올해 몇대 파느냐보다 1위 중요" 수소 열차·선박·발전까지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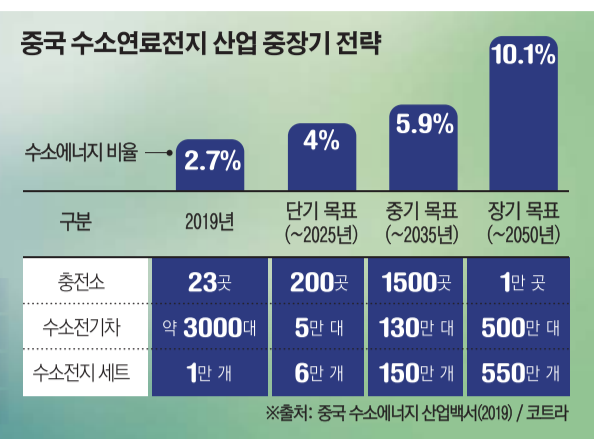
현대자동차가 중국 수소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일찌감치 중국 수소전기차 시장을 위해 공을 들여온 일본 토요타 입장에서 만만찮은 경쟁자가 생긴 셈이다.

중국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 표준 선점 때문이다. 현재 수소전기차의 안전 기준과 충전 방식 등에서 공식화된 기준이 없다.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이 표준을 주도하게 된다.

그래서 4일 현대차가 밝힌 '중국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의 골자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히 "중국 어느 지자체와 (또는 어느 회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상 일본 토요타가 선점을 넘어서 독점 중인 시장에 현대차가 도전장을 던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한·일 수소전기차 현황

현대차	토요타	혼다
넥쏘	미라이	클레러티
		
최고출력(hp 환산) 163	최고출력(hp 환산) 154	최고출력(hp 환산) 174
최대토크(kg.m) 40.1	최대토크(kg.m) 34.2	최대토크(kg.m) 30.6
주행거리(美EPA 기준, km) 595	주행거리(美EPA 기준, km) 502	주행거리(美EPA 기준, km) 589
수소탱크 용량(kg) 6.3	수소탱크 용량(kg) 5.1	수소탱크 용량(kg) 5.5



지금까지 현대차와 토요타는 '수소전기차'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양사는 혈투를 앞둔 맹수(猛獸)처럼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 정면 대결을 피했다는 뜻이다.

일본 토요타가 중국 수소전기차 시장에 집중하는 사이, 현대차는 세계 시장을 겨냥했다. 나아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자동차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철도와 선박은 물론 자가발전기 시장까지 확대하면서 토요타와의 맞대결을 피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중국 정

부가 내놓은 2050년까지 중장기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면 현대차로서 가만히 앉 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장기적 으로 전체 에너지의 10%를 수소로 활용하 고, 수소전기차 500만 대 보급을 공언했 다. 우리나라 1년 자동차 시장이 약 170만 대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얼마나 큰 수 소전기차 시장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수소전기차 시장은 누가 먼저 시장을 선 점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예컨대 전기차 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았다. 이렇 도 생경한 중국 현지 토종 전기차 회사들

이 속속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연간 180만 대 수준을 만드는 벤츠가 일 찌감치 수소전기차를 포기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반면 한때 820만 대를 만들었던 현대차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결국,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향후 성장 동력을 좌우한다.

시장을 선점하면 수소전기차의 글로벌 표준을 거머쥘 수 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차(회사)가 수소전기차 생산 및 안전, 충전 표준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초의 시장 선점이 중요한 게 이런 이유다.

일본 토요타가 거대 시장 중국을 선점하 려는 것도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 다. 현대차가 자동차 이외에 열차와 선박, 자가발전 등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 역시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해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현대차로서는 올 해 수소전기차를 몇 대 파느냐보다 세계 시장에서 1등을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유 럽 메이커가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 기 전, 글로벌 수소전기차 안전 및 충전 표 준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언제



어디서나



HOME OFFICE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우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50% 90%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 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청구, 웹발도, 도메인)

DOUZONE dt.wehago.com

비대면 서비스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전용 상담 전화 **02.6233.2000**



쌍용차, 앞뒤 다 바꾼 '올 뉴 렉스턴' 공개 쌍용자동차 G4 렉스턴이 출시 3년여 만에 부분변경 모델 '올 뉴 렉스턴'으로 거듭났다. 부분변경 모델이지만 앞뒤 디자인을 화끈하게 바꾸는 한편,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등을 추가하며 환골탈태했다. 복합연비는 리터당 11.6km로 이전보다 약 10% 향상됐다. 판매가격은 3695만~4975만 원. 가수 임영웅이 올 뉴 렉스턴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쌍용차

허세홍 사장 "구성원 모두가 리더" GS칼텍스 임원개발프로그램서 '위더십' 다시 당부

허세홍(사진) GS칼텍스 사장이 최근 석유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구성원이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 하향식 리더십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구성원 전체가 주도성을 발휘하는 '위더십(Wedership)'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GS칼텍스에 따르면 허 사장은 최근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리더십: 위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하반기 EDP(임원 개발프로그램)에서 임원들에게 위더십 역할을 갖춘 리더를 키워내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사장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설정한 목표들을 착오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따뜻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의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와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그러자면 구성원 모두가 리더가 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위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부터 허 사장이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위더십은 리더가 주도하는 일하는

방식이 아닌 구성원 개개인이 주도성을 발휘해 혁신을 위해 도전하는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친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석유 사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자 이 같은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EDP에선 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개선 프로젝트와 HR 주요추진사항도 공유됐다.

GS칼텍스는 석유사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우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존 주유소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차량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 플랫폼인 '에너지 플러스 허브(energy plus hub)'를 기획하며 주유소를 도심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엔트 IPO 연기 '후폭풍'... 中시장 불신 커진다

마윈, 금융당국 비판 후 호출 면담... 다음날 '연기' 결정
 '모회사' 알리바바 주가 8.13% 폭... 마윈 자산 3兆 줄어
 '세계 최대 IPO' 대박 기대했지만 투자자들 실망감 커져

사상 최대 규모로 기대를 모았던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가 연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중국 당국이 앤트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IPO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 중국 시장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모회사 알리바바그룹 주가가 폭락한 것은 물론 창업자 마윈의 자산도 하루 만에 28억 달러(약 3조 원)나 쪼그라들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앤트는 이날 밤 홍콩과 상하이에서 계획했던 IPO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앤트를 실질 지배하고 있는 마윈 창업자가 전날 금융 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게 이유다. 앤트는 5일 홍콩과 상하이에 상장해 사상 최대인 총 34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럽게 IPO가 연기되면서 투자자가 납입한 돈은 반환되며, 상장 시기도 무기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거래소 측은 중국 금융당국이 마윈 등 회사 임원들을 전일 소환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회사가 상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그룹 임원들과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일각에선 앤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군기잡기'로 보고 있다. 마윈은 지난달 24일 상하이 와이탄금융서밋 기조연설에서 중국 규제 당국과 은행권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당시 그는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혁신에도 뒤쳐져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전날 마윈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등 4개 규제 당국에 불려가 '예약 면담'을 했다. 예약 면담은 중국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의 관계자이거나 개인을 불러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질타하는 일종의 '군기잡기'다.

앤트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는 이용자가 10억 명이 넘으며, 가계대출과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기존 대형 은행을 능가한다.

이런 앤트의 성장세는 중국 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당국은 앤트처럼 빠르게 성장한 핀테크 분야에서 새로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지는 사태를 경계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상 최대의 IPO를 성공시키면 앤트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홍콩에서는 개인 투자자 155만 명이 IPO에 응모, 사상 유례없는 인기를 끌고 있다. 서구 투자자들도 앤트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프리마켓에서는 공모

가를 50%나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NYT는 "앤트는 중국의 금융·정치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특권을 누려온 중국 국영은행의 우위에 도전하고 있다"며 "그간 규제 당국은 앤트의 급성장을 예의주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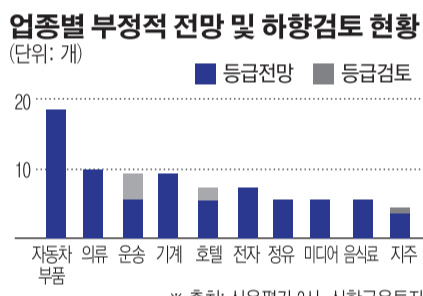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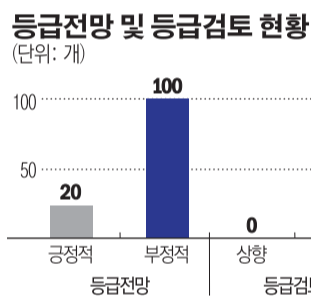
문제는 중국 당국이 앤트의 성장에 제동을 걸면서 해외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니혼게이지신문은 "이례적인 상장 연기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냉각시킬 수 있다"며 "민간 주도로 발전해온 핀테크 분야에서 국가 통제가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앤트의 IPO 연기에 마윈의 재산은 609억 달러에서 581억 달러로 하루 사이에 28억 달러나 줄었다. 마윈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알리바바 주가는 3일 뉴욕 증시에서 285.57달러로 8.13%나 주저앉았고, 4일 홍콩증시에서도 7% 가까이 빠지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00@

“기업 신용등급 하락세, 금융위기 때와 닮아”

올해 상향 12곳·하향 39곳
 8년째 상향보다 하향 많아
 한계기업 비중 6.6%P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업 신용등급 하락세가 과거 카드대란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닮았다고 분석했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등급을 상향한 기업 수는 12개, 하향한 기업 수는 39개다.

이에 따라 등급이 상승한 기업 수를 등급이 하락한 기업 수로 나눈 등급 상하향배율은 0.31배였다. 이는 등급 상승 기업이 하락 기업 수의 0.31배에 그친다는 의미다.

상반기 0.19배보다는 좋아졌지만, 하향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신용등급 상하향배율이 1을 밑도는 현상도 2013년(0.54)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기평의 신용등급 상하향배율은 2015년 0.16배를 기록한 이후 2016년 0.45배, 2017년

0.63배, 2018년 0.88배 등 3년 연속 상승했으나 작년에는 0.57배로 하락했다. 긍정적 전망은 20개였고, 상향검토 대상은 없다. 반면 부정적 전망과 하향검토 기업은 각각 100개, 7개였다.

기업들의 신용위험은 진행형이다. 이완희 무디스 선임연구원은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부여된 한국의 비금융기업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부진한 영업실적을 보였다"며 "어려운 영업환경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12개월간 부정적 등급조정이 긍정적 등급조정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코로나19 여파로 26개 한국 비금융기업(비상장 공기업 제외) 중 15개사가 상반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업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유, 화학, 철강, 자동차 등 경기 변동성이 높은 업종의 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

았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국내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보다 6.6%포인트(P) 상승한 21.4%로 추정됐다. 업종별 매출액이 평균 10.5%, 코로나 취약업종은 평균 29.5% 감소하는 스트레스 상황이 전제됐다.

더욱이 한계기업의 신용위험은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한계기업 예상부도 확률은 6월 기준 평균 4.1%로 비(非)한계기업은 1.7% 기록하는 데 그쳤다. 예상부도확률이란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기업의 자산가치가 1년 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 이하로 하락(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확률을 의미한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코오롱티슈진, 결국 증시 퇴출

거래소, 상장폐지 의결... 6만여 소액주주 피해 예상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보유한 6만여 명의 소액주주 지분(33.66%) 또한 휴지조각이 되는 만큼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의 심의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상장폐지)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인보사의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미국 임상 3상 시험이 중단됐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4월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을 재개토록 했다.

김우람 기자 hura@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해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은 같은 해 10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아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11일 1년간의 개선 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했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건과 별도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해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김우람 기자 hura@

현대글로벌비스 내다판 국민연금

지난달 23회 걸쳐 1075억 매도... 지분 10% 이하로

국민연금공단이 현대글로벌비스 주식을 팔아 1000억 원 가량을 현금화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대주주인 현대글로벌비스는 그룹 지배구조 재편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어느 때보다 주가 유지가 필요하다. 정 회장으로서 국민연금의 이런 행보가 답답지 않은 상황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6일부터 26일 까지 현대글로벌비스 23회에 걸친 장내 거래로 총 63만9983주를 매도했다. 총 주식의 1.71% 수준으로 거래

평균 단가 16만8000원을 적용하면 약 1075억 원 규모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보유한 현대글로벌비스 주식은 431만1015주(11.50%)에서 367만1032주(9.79%)로 줄어 10%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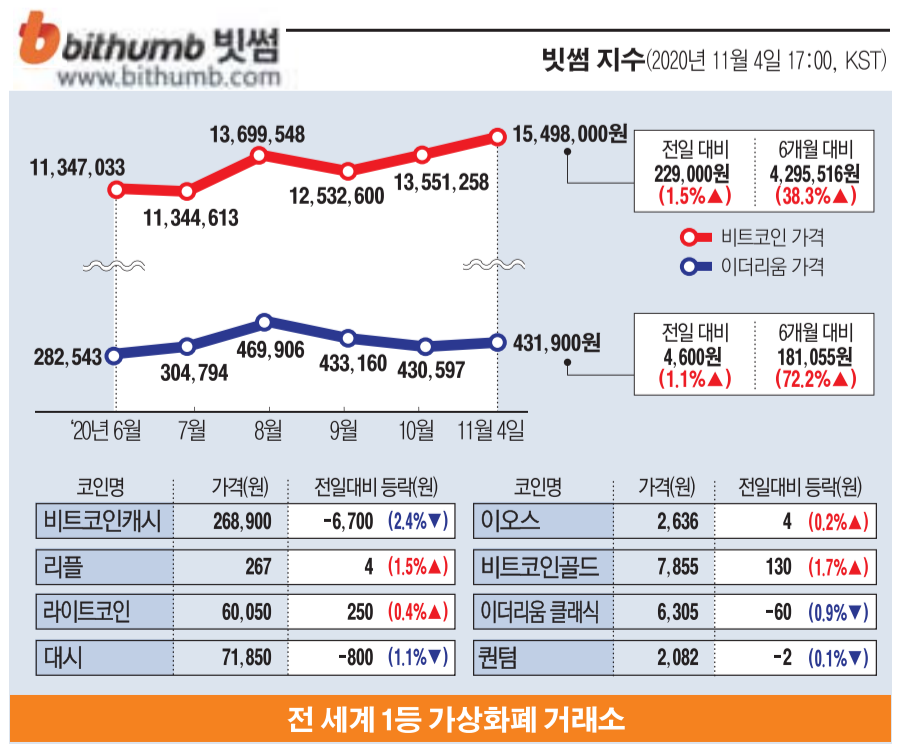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달 20일 52주 최고가인 22만2000원을 기록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량의 국민연금 보유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며, 17만 원대로 떨어졌다.

현대글로벌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핵심 열쇠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21.4%)→현대차(33.9%)→기아차(17.3%)→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다. 현대모비스를 통해 그룹 주요 계열사 통제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 지분율은 현대모비스(0.32%), 현대차(2.62%), 기아차(1.74%) 모두 낮다. 이에 비해 현대글로벌비스(23.29%)와 현대엔지니어링(11.72%-비상장)의 지분율은 높다.

따라서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고, 실제 2018년 3월 28일 장 마감 후 발표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이런 틀에서 진행됐다. 현대모비스 모빌 사업과 애프터서비스(AS) 부품 사업을 분할한 후 현대글로벌비스와 합병하는 방식이다.

김우람 기자 hura@



증세에 공시가 현실화...더 커지는 '똥똥한 한 채' 선호

양도세 증가·보유세 '이중고'...내년 6월이 변곡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114㎡형과 대전 유성구 '죽동 푸르지오' 아파트(전용 84㎡·시세 6억 원)를 가진 A씨는 올해 보유세로 952만 원가량을 부과받았다. 2030년까지 A씨가 집 두 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보유세 부담이 3896만 원까지 늘어난다. 지금 집값이 10년 동안 제자리에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중부세) 세율 등이 인상되는 데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매물 일부가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일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저가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하) 한 채만 가진 가구엔 재산세를 3년간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는 집값에 상관없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는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 두 가지 악재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시간도 촉박해 매년 공시가격이 시세에 맞춰 상승 조정되는 만큼 주택 보유세가 갈수록 늘어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주택자 정도는 전·월세 등으로 버틸 여력이 있겠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증여나 매매 등 주택 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이 주택을 꾸준히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내놓는 주택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가 일시적으로 유예된 율상반기에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아파트값이 약보합 양상을 보였다. 함 랩장은 "매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다주택 수요가 줄어든 만큼 내년엔 매매가격 상승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가격 상승 폭이 작고 수요가 뒤따르지 않는 지방 주택의 경우 원정 투자자가 내놓는 물건으로 인한 시세 조정이나 타낼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에 주택을 가진 원정 투자자의 경우 법인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선 똥똥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래푸+대전 6억 아파트' 보유세 952만 → 3896만원
다주택자 감면대상서 제외...3주택 이상 집 정리 필요
지방 매물 우선 내놓을 듯... "내년 집값 상승 동력 하락"

나오고 있다. 투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똥똥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6월이 시장 향방을 읽을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본다. 6월을 기점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이후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 세율이 증가된다. 현행 세율과 비교하면 각각 10%P씩 높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중부세 세율도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1.2~6.0%로 올라간다. 올해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부세 세율(0.5%~3.2%)보다 두 배가량 높아졌다.

문제는 서울뿐 아니라 과세표준도 함께 늘어날 판이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3

정도는 전·월세 등으로 버틸 여력이 있겠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증여나 매매 등 주택 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이 주택을 꾸준히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내놓는 주택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가 일시적으로 유예된 율상반기에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아파트값이 약보합 양상을 보였다.

다만 가격 상승 폭이 작고 수요가 뒤따르지 않는 지방 주택의 경우 원정 투자자가 내놓는 물건으로 인한 시세 조정이나 타낼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에 주택을 가진 원정 투자자의 경우 법인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선 똥똥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임대차법發 '전세난'인데...與 또 '전세 3+3년 법안'

여당 주도로 통과된 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이 '대란'을 겪고 있지만 정작 여당은 추가 임대차법 개정안 통과는 버리고 있다. 최근 전세난은 임대차 2법 시행 부작용 때문이라는 지적이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임대차시장의 부작용을 경험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전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자녀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임대차 보장 기간을 3

'전·월세 상한제案' 발의 이어 표준임대료제 도입도 본격 논의

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전세 임대차 기간 6년 보장 법안 발의는 최근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심각한 전세난을 겪는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대 6년까지 전세계약을 보장하면 6년간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순 있겠지만 전세 매물 품귀와 함께 6년 뒤 전셋값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전세시장 혼란을 다음 정부에 떠

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안을 6월 발의했다. 현행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도 이달 중순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임대료 상승 제한을 위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공시하고 행정기관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료 통제는 사적 자치 원칙에 반하고 임대인 재산권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용욱 기자 dragon@

현대ENG, 친환경·건강 주거상품 선보여

4분기 분양 단지부터 '넥스트 스마트 솔루션' 적용

현대엔지니어링은 올 4분기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차세대 주거 상품인 '넥스트 스마트 솔루션(Next Smart Solution)'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넥스트 스마트 솔루션은 입주자의 건강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생활을 지향한다. 이를 위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했다.

주거 공간에는 '슈퍼 환기 시스템' 및 '슈퍼 공기 질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강화된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공용공간에는 '클린 에어돔'과 '스마트 커넥션 시스템', '스마트 보안 등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환경정화 식물에 초미세 물방울을 뿌려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주변 온도를 낮추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미스트 랜드스케이프' 기술 구성도.

사진제공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은 조경 분야에서도 '미스트 랜드스케이프' 기술을 선보인다. 초미세 물방울을 환경 정화 식물에 뿌려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주변 온도를 낮추는 기술이다.

박종화 기자 pbell@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 STORY
Feel환경 시대 必환경 생활

- PART1. 숫자로 읽는 기후 위기 지구가 보내는 SOS
- PART2. 앞을 닦고 환경용어카운트도 보는 환경 이슈
- PART3. 친환경 모담노드 재대로 해아 재대로 지구를 살린다
- PART4. 생활용 아이디어 인사이클로 업그라이드, 일상속 미학
- PART5. 건강한 한 끼 100점짜리 건강을 위한 일
- PART6. 차세대 친환경 먹거리 필환경을 위한 경제가 보인다

다들 뉴질랜드 가서 행복하더라... 양천구를 공군다
모스트 코로나 시대의 김수영 양천구청장 해법

"저게 7억 인구 중 자원의 유일한 허미가 있습니다"
박사를 만드는 게 허미민 남자 조동성 이사장의 브라비타입

니조차도 감동 못할 거야, 그 누가 감동해주려?
이진우 작사가

더불어 숲
어디서든 휘둘리지 않으면
거기 도솔천

고수 열전 사건의 시작은 귀농 반대투쟁이었지만

시골에서 단박이나 편편을 운영하는 이가 많지만 순항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름 모르지 않았던 이정형 최양산도담관선 대표 역시 심오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가이아 현신을 짓겠다고 기세를 돋우던 남편이 결국 입을 내고야 말았다. 그후는 심의와 봉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영, 이게 뭘알? 편편 사업이 빅손조롭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김혜영의 느린 여행
'고한 18번가의 가격' 강원도 정선 고한읍에서 인적이 가장 뜸했다는 고한8리 골목에 들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 걸까. 골목의 변화는 놀라웠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이 호열이라는 자부심으로 매일 잠 알 화단을 단정한다. 마을은 나날이 예뻐진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 기대된다.

엄마가 엄마에게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좋은 등푸른생선 레시피

명사·명작 돌아보기
알고 없는 거리의 화가, 박크시
"15의 원따리 그림이 질려나간 사연"

삼삼오오 50+ 커뮤니티
아웃부터 환경까지, 우리를 잇는 한뼘

자투리 천도 송송하게 이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원단으로 재탄생한다. 그렇게 한 뼘 한 뼘 바느질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바래진 물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랑한뼘' 커뮤니티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증인 없이 헛도는 ‘검언유착 재판’

‘제보자X’ 구인장 발부에도 또 불출석... 20분 만에 종료

“한동훈 검사 수사받아야 출석” 수사팀장, 독직폭행 기소돼 불참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이른바 ‘제보자X’ 지모(55) 씨가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증인 출석 요구에 연속해서 불응했다. 지 씨를 포함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요란했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재판은 두 달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4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백모(30) 채널A 기자의 공판을 열었으나 지 씨를 비롯한 증인 4명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20여 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재판부가 지난달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는 이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

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받기 전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 씨는 “한 검사장의 검찰 조사나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가 증인신문에 응한다는 것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가 진실 왜곡에 스스로 나서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인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기자가 채널A에 재직할 당시 법조팀장 등 3명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출석요구서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했다.

백 기자의 변호인은 “지 씨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공개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고 채널A 관계자들 역시 나오지 않아 절차가 공전하고 있다”며 “신문이 필요하지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재판 절차에 여유

가 없다”며 “검찰은 신중한 증인들이 출석하도록 협조를 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측이 신청한 보석에 관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보석심문은 지난달 19일 열렸다.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엔 재판 참여를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의 이름이 34번 기재됐으나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불출석한 채널A 관계자 2명의 증인신문 일정을 19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각각 잡았다. 지 씨와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증인신문도 16일로 다시 잡았다. 김중용 기자 deep@



대관령은 이미 한겨울
울기를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인 4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 도로변에 고드름이 달려 있다. 연합뉴스

檢 ‘라임 로비 의혹’ 우리銀 압수수색

‘김봉현 옥중서신’ 관련 가능성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정치인 A 씨의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탁현 부장검사)는 이날 A 씨의 사무실과 자택,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 형태로 공개한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후 이종필과 우리은행장, 부행장 등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라임과 무관하게 다른 회사를 지문한 것”이라며 “김 전 회장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우리은행 측도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을 로비했

다’고 적시한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한 것은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사 중 하나다. 특히 우리은행은 전체 라임 펀드 계좌의 35.5%에 달하는 1640개를 팔았다.

검찰은 최근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인 KB증권 등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검찰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등 증권사의 국내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및 부실 운영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천 기자 int100@

돈 떼먹고 잠적했던 두산家 4세 “불행한 가정사 때문”

(박중원)

항소심서 선처 호소

지인들에게 수 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다 잠적했던 두산가(家) 4세 박중원(52)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8-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씨 측은 아버지인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사망과 친형의 배신 등

가정사를 언급하며 “정신적 충격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박 전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인수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박 씨는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는다.

박 씨는 자신이 두산그룹 오너가라는 것을 내세우거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친분을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2012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

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도피 행각을 벌이던 그는 2013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공판기일에 줄곧 출석하다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결정되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선고가 3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박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중용 기자 deep@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바이로봇
APT Shield 2.0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우리 정서 담은 영화, 어려운 시기 위로되길”



초대석

영화 ‘담보’ 두석역 성동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저를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1998년 외환위기가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드라마 ‘은실이’ 속 ‘빨간양말’ 캐릭터의 능청스러운 모습은 국민에게 큰 웃음을 줬다. 배우 성동일이 보여주는 솔직한 모습과 유쾌한 기운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이들을 위로해주기 충분했다. 성동일이 또 한 번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이들에게 영화 ‘담보’보다 더한 힐링극은 없다.

최근 서울 종로구 삼정동 인근 카페에서 만난 성동일은 “우리 국민이 어려워지면 화려한 것보다 위로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하게 된다”며 “몇천억 원이 투입된 할리우드 영화에 길들여진 관객이 과연 중급 예산인 영화에 성이 차겠나 싶지만, 우리 정서를 담은 영화니까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감독 강대규)는 인정사정없는 사채업자 두석과 그의 후배 중배(김희원 분)가 떼인 돈을 받으러 갔다가 얼떨결에 아홉살 승이(박소이 분)를 담보로 맡아 키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성동일은 극 중 까칠해도 마음만은 따뜻한 사채업자 두석 역을 맡았다.

“윤제균 감독이 ‘시나리오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선배 두고 쓰다시피 했으니 읽어봐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실제 제 얘기가 많기도 했고, 그만한 딸을 키우고 있어서 재밌게 해볼 만 하다 싶었죠. 정치적인 게 들어가지 않으니 재밌는 영상 소설로 만들기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시나리오 보고 세 군데 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우리도 볼 수 있는 영화 찍어 달라’고 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담보’는 성동일 그 자체다. 그는 승이



성동일은 영화 ‘담보’에 대해 “적은 돈을 투자했지만 두 시간 동안 누가 대신 책을 읽어준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떼인 돈 받으러 갔다가
9세 아이 담보로 맡아 키워
어린 시절 떠올라 공감
단역이든 주연이든 소중
시나리오·감독 믿고 가죠



캐릭터를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저는 사채업자라는 놈이 승이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학교엔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도 10년 넘게 호적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녀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라온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니 제가 느꼈던 부분을 참조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간 드라마, 영화 등에서 아빠 역을 술하게 맡은 그이지만, ‘담보’는 좀 달랐다. 기존에는 다 큰 자식, 친자식을 키우며 아웅다웅한 모습을 보여줬다.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번 자식이 제일 키우기 힘들었어요. 보통 일정 동안의 이야기만 담는데, 이번엔 9살부터 성인 이후까지 키워야 했으니까요. 친자식한테 심하게 나무라기도 하고, ‘아빠 힘들다’라며 솔직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승이한테 못해요. 기존에 했던 아버지와 딸 관계와는 전혀 다르죠. 어렵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시나리오엔 있지만, 영화 본편에선 편집된 이야기들도 많다. “두석도 어린 시절 엄마한테 버림받은 인물이에요. 동네 입구에서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립니다. 할머니는 ‘안 와 이눔아’라고 말하죠. 그때를 회상하면서 승이한테 ‘너도 참 인생 더럽다. 나 닮아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갑자기 무슨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몇몇 부분의 편집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평소 성동일은 시나리오와 감독을 무조건 믿는 편이다. 영화화하기까지 감독은 자신보다 200배는 더 대본을 봤을 거란 판단에서다.

“제 것만 보고 튀고 잘나려고 하면 전체

이야기가 안 돼요. 후배들한테도 항상 말해요. 레고로 성을 만들거나 비행기를 만들 때 조각 하나가 없으면 구멍이 뚫려서 만들 수 없잖아요. 배우도 그래요. 레고 하나하나 단역이든 주연이든 소중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영화를 조립한 사람은 감독이니까 믿고 갑니다.”

‘담보’는 성동일의 연기 스펙트럼까지 폭넓게 담아낸다. 그는 40대 중년의 모습부터 70대 노인의 얼굴까지 소화해내며 ‘믿고 보는 배우’임을 입증했다. “처음엔 걸음걸이도 팔자로 세계 갔지만, 중간부터 말 톤을 완전히 바꿨어요. 걸음걸이도 일자로 바꾸고요. 잔가지를 다 쳐냈죠.”

친절한 감정 표현도 지양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순간엔 오히려 눈물을 삼켰다. 억지로 감정을 누르다 보니 머리가 아파져 두통약을 먹기도 했다.

“전체적인 대본에서 제가 제일 살리고 싶었던 신이 있어요. 다 큰 승이가 친부를 만난 후 저와 전화 통화를 하며 ‘아빠’라고 해요. 대본 볼 때부터 거기서 눈물이 나왔어요. 한평생 듣고 싶어했던 말 아니까요. 친자식이 될 수 없을지라도 제대로 표현해내고 싶었어요. 고민도 많이 했어요. 결론은 ‘눈물 흘리지 말고, 끝까지 버티자’였습니다. ‘아빠’라는 말을 듣고 언덕을 올라가는 두석의 뒷모습이 참 맘에 들어요.”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첫 100만 관객 돌파의 주인공이 된 ‘담보’는 이번 주말 손익분기점인 1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일 누적 166만 관객을 기록하면서 현실이 되고 있다. 성동일은 “적은 돈을 투자했지만 두 시간 동안 누가 대신 책을 읽어준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CJ나 윤제균 감독도 고민했을 거예요. 특수를 누리려면 내년 추석 때 개봉을 했겠죠. 하지만 나 살자고, 차가 아깝다고 굴리지 않으면 쓰지도 못한 채 차는 고장 납니다. 먼지 끼지 않고 녹슬지 않도록 조금씩 움직여줘야죠. 기업, 가정, 식당도 녹슬지 않게끔 해야 하고요. 멈출 수 없어요. ‘담보’는 그래요.” 김소희 기자 ksh@

새로 나온 책

조선잡사

강문종·김동건·장유승·홍현성 지음/
민음사 펴냄 / 1만8000원



사극에서는 정보를 전할 때 말을 달리는 묘사가 많지만, 실제 조선에서 말은 무척 비싸고 귀한 몸이었다. 전쟁에 쓰이고 조공으로 바치느라 부족한 말 대신 ‘몸값이 싼’ 사람이 달렸다. 국가의 간선 통신망에서 민간까지 ‘인간 메신저’ 보장사(報狀使)가 활약한 배경이다.

넷가에서 사람을 업어다 건네준 월전꾼, 길에서 죽은 시신을 묻어 준 매골승(埋骨僧), 군대를 대신 가 주는 아르바이트인 대립군(代立軍) 등등 조선의 ‘극한 직업’은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책은 조선 시대 직업의 정확한 실상을 문헌 근거와 함께 들여다보며, 그러한 일들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찬찬히 살핀다.

실례지만, 이 책이 시급합니다

이수는 지음 / 민음사 펴냄 / 1만6000원



일상의 어느 특정 순간, 울분이 가슴 속에 마구 차오를 때,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뛰쳐나가고 싶을 때, 연애가 망해버렸을 때, 모든 걸 다 접고 새로 시작하고 싶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책’을 펼쳐봐야 할 것 같다.

사표를 던지고 싶다면 실제로 사표를 던지고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서머시 몸의 ‘달과 6펜스’다. 자신을 잊고 너무나 헌신적으로 살아온 나머지 자신이 아닌 뭔가가 돼 버린 건 아닌가? 그렇다면 카프카의 ‘변신’을 읽는다.

저자가 소개하는 52권의 책은 태고의 고전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부터 노벨문학상 수상작 ‘방랑자들’에 이른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일과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충일 말고 실린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충일 이자, 후속한 성장형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정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히려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9년 지음 / 200쪽 / 국민은행 / 2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책을 읽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멍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될뿐, 길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지음 / 232쪽 / 예문당 / 215,800원

나라를 지키는 남친을 지키는 보험



“I'm your ARMY”
[아:임 유어 아:르미]

LIFEPLUS 우리가 지켜줄게 안심보험(무)

보험료는 가입 시 딱 한번만!
보험이야말로 군필품이다!

상담문의 **080.365.6363**

한화생명 군인보험



을 검색하세요



예비 군인에게 모바일로
보험을 선물해보세요!

자세한 상품 정보는
QR코드로 확인!



본 상품의 피보험자는 만 19 ~ 35세 남자이며, 일반병사 전용 상품이 아닙니다. 또한 본 상품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입니다. (일반) 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 속으로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사회와 지배구조 요소는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환경 요소는 탄소 배출량 또는 감축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기차 비중 등을 통해 객관화하기에 용이하고, 신재생과 뉴모빌리티를 큰 축으로 영역이 명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성장동력과 산업 육성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친환경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말이다.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주식시장의 비인간적인 특성 때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한 비용은 환영받지 못했고, 도덕적 필요성에 의해 연기금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ESG 투자가 어느덧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경각심이 급속하게 확산했고, 그중에서도 자연 앞에서 인간이 한없이 나약함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고려가 높아졌다. 그러자 ESG 투자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다.

유럽은 가장 먼저 '지속가능한 투자' 관련 여젠다를 만들어 냈고, 연기금 및 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선제적 ESG 투자를 단행했다. 미국도 올해 3대 자산운용사

를 필두로 ESG 요인을 고려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돈이 몰리면 수급의 힘으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맞게 된다. 상반기 미국 ESG 펀드와 ETF로의 자금 유입은 209억 달러에 달했다. 착한 투자는 수익률이 낮다는 통념과 달리 이제는 ESG 투자가 높은 수익률로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올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역대급 변동성을 경험했지만, 친환경 투자자들은 안정적 수익을 누릴 수 있었다.

ESG 틀 내에서도 E(환경)에 초점을 맞춘 투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사회와 지배구조 요소는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환경 요소는 탄소 배출량 또는 감축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기차 비중 등을 통해 객관화하기에 용이하고, 신재생과 뉴모빌리티를 큰 축으로 영역이 명확하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 이후 '그린뉴딜'이라는 글로벌 정책 공조가 더해지며 패러다임의 대전환

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성장동력과 산업 육성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친환경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중심에 그린 뉴딜이 있다.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다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린 뉴딜 정책 육성을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원가(균등화발전비용)가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면서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하락과 전용 플랫폼 출시 등을 계기로 내연 기관 차량과 경쟁할 수 있는 원가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책 논리였다면 이제는 시장 논리에 의해 본격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소, 인버터, 스마트그리드, 전력용 반도체 등이 요구된다.

때마침 배터리,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등 질적 개선이 수반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별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책 변화 우려가 상존하겠지만, 달라지는 것은 속도뿐이지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유럽과 중국이 그린 뉴딜 산업의 주도권을 쥐려고 혈안인데, 미국이 정당 간 정치 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뒷짐을 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불확실성 완화 요인이다.

그린 산업에 투자하는 슬기로운 방법의 하나가 ETF일 것이다. ETF를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뉴모빌리티, 연관 기술 등 다양한 산업과 미국, 중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개별 종목이 아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위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국가마다 에너지원별, 기술별 발전 속도가 다른데,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 예컨대 태양광은 중국이 앞서고, 해상 풍력은 영국 등 유럽이 앞서 가며 풍부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ETF는 성장 초기인 그린 산업에서 개별 종목을 선별해 내는 수고를 덜어줄 것이다.

CEO 칼럼



최소현
파섹션 대표

직접 만들거나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DNA와 태어난 맥락, 멋지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누군가 지어준 이름에 우리는 얼마나 만족할까. 자신과 어울리지 않거나 너무 거창해서 이름값 하기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는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물건, 서비스, 공간과 장소에도 각각 이름이 있다. 그렇다면,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은 무엇일까?

지난주에 다녀온 서울 명동의 한 장소가 인상적이었다. 1967년 준공된 한국YWCA연합회관을 사회혁신기업이 리모델링해 10월 재개관한 공간으로 조선시대 운선도 집터, 일제강점기 이회영 선생의 생가터, YWCA위장결혼식 사건 등 오랜 역사의 레이어가 쌓여 있는 곳이다. 이곳을 책임지고 있는 팀들은 지나온 시간들 속 사람들의 숨결과 고민들을 존중하고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땅의 기억들 위에

앞으로의 이야기가 채워질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페이지 명동'이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Turn the Page, Fill the Page'라는 문구로 새로운 장에서 펼쳐질 담론들과 여러 가치들을 기대하게 하고, 'Have a good Page'라 건네는 인사로 공간을 경험하는 이들이 매우 쉽고 직관적 단어를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이름 짓는 과정은 늘 어렵지만 공간이나 장소의 이름은 특히 더 그렇다. 수많은 이야기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과거로부터의 지층과 현재의 맥락, 누가 누구를 위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만드는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이름이어야 한다.

이름을 만드는 과정은 말 건네고 싶은 대상에게 잘 알리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 지향하는 가치를 어떤 느낌의 언어로 담아내야 할지 고민하는 일이다. 고유성을 담은 의미만큼이나 말맛도 중요하다. 이미 세상에 너무 많은 이름이 존재한다는 팩트는 새로워야 한다는 강박과

이름값 하는 이름 짓기

좌절을 함께 주기도 한다. 무조건 생소한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 새롭다는 것도 상대적이라 누구에게는 낯설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이미 경험한 것일 수 있는 까닭이다. 너무 쉬워도 어려워도 문제인데 익숙한 이름은 신비감이 적거나 이미 아는 다른 것을 연상시킬 수 있고, 난해한 것은 읽고 기억하기도 의미를 쉽게 전달하기도 어렵다.

흔하지 않은 멋진 이름이라도 근거가 없으면 좋은 이름이 되기 어렵다. 부정연상이 없다면 익숙하더라도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더 단단히 만들어 긍정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름의 주인은 깊은 고민에 욕심이 많아지고, 전문가들은 새롭고 창의적인 것에 집착하기도 하며, 관계 없는 이들은 영혼 없는 코멘트를 하기 쉬운 것이 이름 짓는 과정이니 결국 우리의 표현이 어느 누구에게 매력적이고 싶은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언어가 계속 생겨나고 개념이 조금씩 확장되거나 변화

기도 하므로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어떻게 불릴지 상상해 보며 만들어야 한다.

어떤 대상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름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브랜드 자산가치에서 이름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대상이 정의되고 알려지고 타자와 지속적으로 관계 맺는 것의 출발점이 '이름'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름에는 정답도 1등도 없다. 각각에는 기회비용이 있으므로 지금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자라고 진화하면서 어떤 가능성을 더 펼칠지, 이름의 경험이 얼마나 다양하게 확장될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두 명의 전문가에게 일임하기보다 이름을 만들고 키워나갈 다양한 관점의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대안을 발산해보고 약속한 기준에 따라 수렴하는 과정을 반복하기를 권한다. 다양한 경험과 안목을 겸비한 리더라 하더라도 함부로 자신이 옳다 주장할 일이 아니다. 함께 만들고 책임을 다 할 뿐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한스 작스 명언
"인간이며, 행동할 때 죽음을 고려하라. 그것이 최고의 지혜가 될 것이다."

독일의 종교시인. 본업인 제화업에 평생 종사하며 6170편의 작품을 썼다. 루터 복음파를 지지한 그는 계몽시인으로서 시민의 교양과 도의를 이끌어내려 힘썼다. 대표작은 '비테베르크의 나이팅게일' '낙원의 구두장' 등. 그는 오늘 태어났다. 1494~1576.

☆ 고사성어 / 퇴고(推敲)
민다, 두드린다는 뜻. 시문(詩文)을 지을 때 자구(字句)를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친다는 말이다.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가 길을 가다 '이옹의 유거에 제함[題李凝幽居]'이라는 시를 지었다. "이웃이 드물어 한거하고[閑居隣少] / 풀숲 오솔길은 황원에 통하네[草徑入荒園] / 새는 연못가 나무에 잠자고[鳥宿池邊樹] / 중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린다[僧敲月下門]." 마지막 구절에서 막힌 그는 '민다(推)'가 좋을지 '두드린다(敲)'고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에 빠져 대문장가인 한유(韓愈)와 부딪혔다. 사정을 들은 한유의 조언. "내 생각엔 역시 '민다'는 '퇴(推)'보다 '두드린다'는 '고(敲)'가 좋겠네." 그 후 둘은 시우(詩友)가 되었다.

☆ 시사상식 /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을 말한다. '연소 증후군', '탈진 증후군'은 같은 말. 자기 헌신이 강할수록 이 현상에 더 노출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잠자코
한자어 '잠잠(潛潛)하고'가 변한 말.

☆ 유머 / 아이들은 다 안다
벼르고 벌러 에버랜드 가는 날. 아빠가 막히는 고속도로를 버리고 머리 써서 지름길을 함참 달렸다. '도로없음' 표지판을 두 번이나 맞닥뜨린 아빠는 길을 잃어버려 해매자 뒷자리 큰애가 한 말.
"에버랜드 이사 갔어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저수첩



노승길 정치경제부/noga813@

'毒' 된 WTO 사무총장 선거 '버티기'

은 결과지만 충분히 '젓잘싸(젓지만 잘 싸웠다)'로 박수를 받으며 퇴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판이 꼬인 것은 그 이후다. 미국이 유 후보를 공식 지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회원국 중 사실상 유일하게 나이지리아 후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외신들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다시 발동했다는 해석을 쏟아냈다. 미국의 뒤늦은 이의 제기에

유 후보장을 지지하던 국가들마저 반감을 드러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의 입장은 애매해졌다. 회원국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승복하는 방안이 있지만, 한국이 선거에 남기를 바라는 미국의 의중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도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정부는 유 후보장의 '아름다운 퇴장'으로 방향을 잡았다. 청와대에서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유 후보장의 당선을 위해 총력외교를 펼친 만큼 패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유 후보장의 WTO 사무총장 당선은 코로나19, 백신 사태, 부동산 문제, 검찰 개혁 등 혼란한 정국 속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더없이 좋은 사안인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WTO 회원국의 비난을 견디면 서까지 버티는 것이 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설사 버티기로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안 돼 투표 진행이 이뤄지더라도 나이지리아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99%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독이 든 버티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확실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방법이 아닐까?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주필 추창근 | 편집국장 김중훈 |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 대표전화 (02)799-2600 | 팩스 (02)794-1003 |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 구독·배달 (02)799-2684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8 명나라는 왜 임진왜란에 참전했을까

대륙을 약탈하는 해적들, 재정개혁 후 넉넉했던 공간...

명은 조선 구원보다 왜구 퇴치가 목적이었다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꿔 놓은 전쟁이었다. 일본은 도요토미 가문이 몰락하고 도쿠가와 가문이 새로운 막부(幕府, 일본의 무사 정권을 부르는 말)를 창설했으며, 명나라는 과도한 전쟁 비용으로 인한 재정난에 허덕이다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조선 역시 왕권이 약화되며 신하의 힘으로 왕이 교체(인조반정)되는 등 큰 변화를 경험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명나라가 이 엄청난 비용을 무릅쓰고 임진왜란에 참전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임란 50년 전부터 사실상 전쟁 상태

그 이유는 명나라가 임진왜란 50년 전부터 일본 해적(이하 '왜구')과 전쟁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나라는 가정제(嘉靖帝, 재위 기간 1521~1566년) 재위 기간에 역사상 최악의 왜구 침탈을 경험했는데, 이를 '가정대왜구(嘉靖大倭寇)'라고 부른다. 하필 왜 이 시기에 왜구의 침탈이 집중됐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었던 바 있는데,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기 왜구의 상당수는 중국 상인들이었다고 한다. 특히 스스로를 '해상(海商)'이라고 부른, 수백 척의 선박과 십만 명 이상의 선원을 휘하에 두었던 해적왕 '왕직' 역시 중국 출신이었다. 따라서 '가정대왜구'는 중국과 일본의 해상세력 연합이었고, 특히 무력 부분을 일본이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국인 명나라를 대상으로 해적질을 했을까? 그 이유는 당시 명나라의 정책 변화에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무역을 장려하여 7세기 이후 한반도의 여러 왕조는 물론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랍 등과의 해양 무역이 번성하였다. 그러나 명나라를 세운 홍무제(洪武帝, 재위 기간 1368~1398년)가 건국 직후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해금, 海禁)하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대외적으로 쇄국을 이야기한 것일 뿐 해양 무역은 암묵적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특히 영락제(永樂帝, 재위 기간 1402~1424년) 연간에 이뤄진 정화의 대원정을 계기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이 계속되었다. 수백 척의 함대가 인도양까지 탐험하고 수만 명의 군인과 상인이 여행의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상업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건설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정제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해금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며 수백 척의 무역 선박을 파괴하고 밀수상인들을 처형한 것이다.

해외세력의 침탈로 밀무역 금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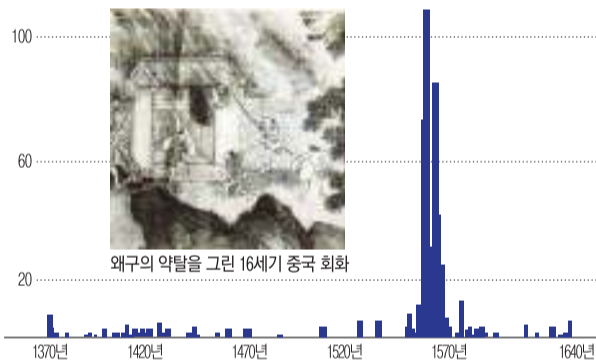
가정제가 갑자기 밀무역에 대해 엄격한 통제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서양 세력이 남중국해에 나타난 것이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 포르투갈 함대가 남쪽에 나타나 명나라 정부에 교역을 요구하고 마카오 일대를 점령한 데다가, 전국시대(戰國時代) 일본의 지방 영주들이 중국에 교역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사건까지 벌어지자 전면적인 통제를 주장하던 사람

들의 기세가 높아진 것이다. 무역금지 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밀무역이 위축되었으나 이를 계속 억누를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포르투갈을 비롯한 해외 세력은 중국의 산물을 간절하게 원했으며, 중국 무역상들은 수십 아니 수백 년 동안 해오던 '생업'이 끊기자 생계를 해결할 목적으로 해적으로 변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중국 동남해안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명나라로의 왜구 약탈은 1560년대에 절정에 달했다.

경제상황 좋았던 강남지역 약탈 집중

왜구의 침략은 명나라에 큰 문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경제력이 뛰어난 강남 지방이 약탈당하면서 재정이 망가진 데다, 북방 만리장성에 정예병이 집중되어 있었기에 왜구와 맞서 싸울 군대가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명나라 정부는 징집을 통해 병력을 동원했지만 이런 병사들은 왜구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물론 중국 군대는 '인해전술(人海戰術)'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있었지만, 왜구는 일본도로 무장한 킬러들이었기에 상황

1370~1640년의 왜구 침입 빈도



왜구의 약탈을 그린 16세기 중국 회화

이 좋지 않았다. 일본도는 징집병의 창이나 낫을 한번에 잘라버릴 정도로 날카로운 뿐만 아니라 잘 부러지지 않는 탄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밀집한 명나라 군대의 한 가운데에 한 명의 왜구가 뛰어드는 순간 대량학살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장 중 하나인 척계광이 등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징집병으로 이뤄진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섰다. 참패를 했지만, 이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가 일으킨 첫 번째 혁신은 무기의 개선이었다. 날카로운 일본도를 막기 위해 병사들에게 창을 들게 했는데, 특히 창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삼지창을 개발했다. 창은 많은 훈련을 쌓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데다 왜구의 칼에 찔날 한두 개가 잘라지더라도 얼마든지 공격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던 것이다.

척계광이 일으킨 두 번째 혁신은 '원양진(鰲船)'을 개발한 것이었다. 원양진은 수컷이 죽으면 암컷이 따라 죽는다는 원양의 전설에서 따온 것으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운명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원양진은 모두 12명으로 이뤄졌는데, 왜구와 근접전을 벌일 때는 등나무 방패를 든 2명이 중심에 선 장창병을 보호하며 나머지 2명은 대나무 창(長槍)의 일종인 낭선(浪箭)을 사용하여 난입하는 왜구의 일본도를 막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왜구의 난입을 격퇴할 수 있

었던 것이다.

무기 개발·전법 혁신도 한몫

신무기와 새로운 전술을 채택한 후 척계광은 믿을 수 없는 연전연승을 기록했다. 이전에는 왜구들이 명나라 군대를 유인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 밀집진형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학살했지만, 척계광의 군대는 이를 역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승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지방의 지주들까지 지원에 나서며 1561년 척계광의 군대는 6000명으로 불어났고, 이후 5년간 80여 차례의 전투를 벌여 모두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왜구의 침략이 기본적으로 무역을 원하는 상인 및 해외세력의 이해에 기반한 것이었기에 척계광의 힘만으로 전쟁을 끝낼 수 없었다. 결국 가정제가 사망한 후 1567년 황제로 등극한 융경제(隆慶帝, 재위 기간 1567~1572년)가 북경성의 장저우(漳州)항을 개방하고 해외에 나간 중국인들이 무역하고 돌아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왜구의 침입은 끝을 맺었다.

그러나 왜구의 대대적인 침략은 명나라의 지배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일본의 세력이 대단히 강대하다는 것, 그리고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육성할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다. 이 결과 장거정(張居正)의 개혁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었다. 그는 다양한 세목을 통합해 토지세로 단일화하는 한편 세금을 쌀과 같은 현물에서 은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조정이 자리 잡고 있는 북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을 치를 경우, 쌀이나 의복 등의 물자를 현물로 수송하기보다 현지의 상인에게서 구입하는 편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다. 특히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훨씬 편하게 여긴 점도 재정개혁의 원인이 되었다.

운택해진 재정, 조선의 요청에 응하다

장거정의 재정개혁 이후 명나라의 재정은 대단히 운택해졌다. 만력제(萬曆帝, 재위기간 1572~1620년) 때 북방을 끊임 없이 침략하던 몽고제국의 엄달 칸이 명 조정에 조공(租貢)을 바치는 등 평화 무드가 조성된 것도 몽고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을 공급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보면 명나라가 '돈으로 평화를 산'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재정개혁 및 해외교역으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명 정부의 태상(太倉)에는 식량이 1300만 석 그리고 국고에는 600만 냥 이상의 은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덕분에 명나라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파병 요청에 대응할 수 있었다. 척계광이 만들어낸 왜구 대응책, 그리고 머나먼 곳까지 군대를 보낼 수 있었던 재정 능력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대규모 파병이 가능했던 셈이다. 이런 면에서 '가정대왜구'는 임진왜란의 전초전이자 승패를 가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EAR리서치 대표

사설

美 대선 혼란 현실화, 안보·경제 불안 차단해야

우려했던 대로 미국 대통령선거의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대선 개표 막바지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승리로 가고 있다"며 "모든 개표가 끝날 때까지 대선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우리가 대응했는데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며 "국민에 대한 사기 선거"라고 맞섰다.

이번 선거의 항배를 좌우하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 개표에서 트럼프가 우세를 굳힌 가운데 나온 양측의 주장이다. 논란을 빚어온 우편투표의 개표가 지연되면서 최종 결과의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우편투표에 대한 소송을 언급했다.

당분간 당선자가 확정되지 못하고, 대선 결과에 어느 쪽도 승복하지 않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0년에도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은 대선에서 고어 후보가 오렌 기간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큰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미국의 대선 결과는 세계 정치와 안보,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당분간 불확실성이 증폭될 소지가 크다.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의 기반을 흔들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불을 붙였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인류 공통의 환경 현안을 외면했다. 세계는 훨씬 혼란스러워졌다. 트럼프 재선은 이런 흐름을 고착화할 것이다. 바이든의 경우 동맹

중시의 외교안보 전략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 규범중심의 통상정책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 미국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와 통상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로서는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이다. 트럼프 2기든, 바이든으로의 정권교체든 앞으로의 외교·안보·경제 여건 모두 더 어려워지게 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가 시도했던 북한의 비핵화는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만남은 비핵화의 어떤 진전도 가져오지 못했다. 앞으로는 그런 협상의 동력도 기대하기 힘들다.

미국의 통상정책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변수다.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의 중국 배제전략은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플러스 등 인도-태평양 전략,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에 한국의 참여를 더 압박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안보와 통상 모두에서 우리의 공간은 좁아질 것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줄타기식 접근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장 우리에게 급한 것은 미국의 혼란에 따른 안보와 경제 불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일이다. 나아가 우리가 전략적 선택에 직면한 상황을 깊이 고민하고, 대북·대중 정책의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이 중심가치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 컷



가을 같기도, 겨울 같기도

전국 곳곳이 영하권에 진입하며 울기를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며 나뭇잎을 떨구고,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담소를 나누는 시민들의 머리칼도 사정없이 휘감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Just the way you are



stinger
MEISTER



The Power to Surprise

| 최고출력 304마력 스마트스트림 2.5터보 엔진으로 더 강력하게 |
| 수평형 리어콤비램프와 킴팅 나파가죽 시트로 더 프리미엄하게 |

www.kia.com
구입문의 1588-1100
고객센터 080-200-2000

AUTO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Care Service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 스티어링 2.5 가솔린 터보 18인치(올시즌) 자동8단 2WD: 복합 11.2km/l (도상: 9.8km/l, 고속도로: 13.4km/l)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690kg | 복합CO₂배출량 151g/km - 4등급 ▶ 스티어링 2.5 가솔린 터보 19인치(올시즌) 자동8단 2WD: 복합 10.8km/l (도상: 9.7km/l, 고속도로: 12.4km/l)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705kg | 복합CO₂배출량 156g/km - 4등급 ▶ 스티어링 2.5 가솔린 터보 18인치(올시즌) 자동8단 AWD: 복합 10.2km/l (도상: 9.1km/l, 고속도로: 11.8km/l)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755kg | 복합CO₂배출량 166g/km - 4등급 ▶ 스티어링 2.5 가솔린 터보 19인치(올시즌) 자동8단 AWD: 복합 10.0km/l (도상: 9.0km/l, 고속도로: 11.5km/l)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770kg | 복합CO₂배출량 170g/km - 4등급 ▶ 스티어링 3.3 가솔린 터보 19인치(올시즌) 자동8단 2WD: 복합 9.0km/l (도상: 7.9km/l, 고속도로: 10.7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1,775kg | 복합CO₂배출량 192g/km - 5등급 ▶ 스티어링 3.3 가솔린 터보 19인치(올시즌) 자동8단 2WD: 복합 8.8km/l (도상: 7.9km/l, 고속도로: 10.2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1,775kg | 복합CO₂배출량 192g/km - 5등급 ▶ 스티어링 3.3 가솔린 터보 19인치(올시즌) 자동8단 AWD: 복합 8.5km/l (도상: 7.5km/l, 고속도로: 10.2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1,845kg | 복합CO₂배출량 203g/km - 5등급 ▶ 스티어링 3.3 가솔린 터보 19인치(올시즌) 자동8단 AWD: 복합 8.4km/l (도상: 7.4km/l, 고속도로: 10.0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1,845kg | 복합CO₂배출량 202g/km - 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